

전국체전 기획 12년 만의 제주체전 무엇이 달라지나

70만 도민 ‘하나로’… 제주 브랜드 가치 ↑

장애인체전 9월 개최… 선수 중심 ‘배려체전’ 실현
자원봉사자·도민 서포터즈 참여로 ‘화합체전’ 완성

대한민국을 뜨거운 스포츠 열정과 인간 승리의 감동으로 가득 채울 대장정이 바랍과 돌, 그리고 신화의 섬 제주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가을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10월 16~22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의 장을 넘어, 70만 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묶어내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문화·화합·경제·감동·미래 체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년 만에 제주에서 다시 열리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행정과 도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그 현장을 짚어본다.

▶개최 시기 조정을 통한 장애인 권익 증진 실현

이번 대회가 가진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장애인 대회인 ‘전국체육대회’보다 한 달 앞서 선행 개최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전국체전 이후 쌀쌀해진 가을 끝자락에 치러지던 장애인체전의 시기를 앞당긴 것은 장애인 선수단에게 한층 쾌적하고 최적화된 경기 환경과 온화한 기후 조건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포문을 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9월 11일(금)부터 16일(수)까지 6일간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도내의 3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총 31개 종목에 약 1만명(선수 7000명, 임원 3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할 예정이다. 타 시도에서 열리는 사격, 조정, 사이클(트랙) 등 3개 종목을 제외하고 제주 전역의 경기 인프라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인프라 확충과 빈틈없는 교통·숙박 대응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고품격의 경기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다. 이미 서귀포시종합체육관 신축을 비롯해 도내의 총 63개소에 달하는 경기장에 대해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거나 막바지 추진 중에 있다. 필수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을 설치해 8월부터 10월 사이 집중 배치돼 완벽한



제주 전국체전 마스코트 ‘끼요’

경기 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몰릴 것에 대비한 숙박, 교통 대응책도 매우 촘촘하게 다듬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드웨어 중심의 준비를 넘어 ‘감동과 배려’가 흐르는 행정을 지향하며,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과 개·폐회식장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관람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공항 내 장애인 렌터카 전용구역을 별도로 마련해 이동의 제약을 해소할 방침이다. 선수단 수송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배차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선수단이 머무는 숙박시설의 위생 지원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숙소 내에 휠체어 임시 이동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

▶70만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화합이 만드는 성공 방정식

촘촘한 행정적 지원이 대회의 든든한 뼈대를 세운다면, 대회의 진정한 성공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는 그 안을 따뜻하게 채울 무형의 자산인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에 있다. 이번 체전은 철저하게 도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화합 체전’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경기장 안내소 지원, 개·폐회식 및 경기 운영 지원 등 최일선에서 손발 역할을 맡을 자원봉사자 3500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관람석을 가득 채우고 성숙한 응원 문화를 선보일 도민 서포터즈는 현재까지 2600여 명이 동참을 이끌어 내며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들 서포터즈는 8일 한라체육관에서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붐업 조성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주의 주인으로서 대회의 성공을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의 진정한 지향점이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마지막 월드컵… 괴로운 호날두 7일(한국시간) 열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복승미 월드컵 16강전에서 포르투갈이 1-0으로 패하자 호날두가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제주 꿈나무들 메달 14개 획득

정태후·문다희·강예빈 ‘금’

제주유도 유망주 정태후(애월중)와 문다희(귀일중), 강예빈(한라유도클럽)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전국 메트를 정복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김천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제주유도 꿈나무들이 금메달 3개 등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남자중등부 -51kg급 정태후는 결승까지 거침없는 5연승으로 시상대 최정상에 올랐다. 정태후는 1회전에서 박준영(탐유도관)을 되치기 유효승으로 승리한 후 2회전 김로원(삼성중)에 허리껴치기 절반승, 3회전 안우영(한라유도클럽)엔 발목반치기 유효승, 4회전 최태진(보성중)을 발목반치기 유효승으로 연달아 물리친 후 결승전에서

한재민(비봉중)을 되치기 절반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중등부 +70kg급 문다희 역시 작수가 없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문다희는 1회전에서 김아진(순천신승중)을 업어치기 절반에 이은 누르기 절반 한판으로 꺾은 뒤, 2회전 황한별(영선중)을 업어치기 절반 두 개로 한판승, 결승전(3회전)에서는 김지원(천명유도관)을 뒤 허리안아메치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초등부 -48kg급에 출전한 강예빈(한라유도클럽)은 1회전에서 이지수(안철웅유도관)를 누르기 한판으로 제압한 뒤, 2회전에서 이아람(석수초)을 안오금찍기 절반과 업어치기 절반을 묶어 한판으로 꺾었다. 기세를 몰아 결승전(3회전)에서 김솔(대구태현초)을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매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벤투 감독, 한국 축구대표팀 복귀 원한다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사진)이 공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다. 다만 벤투 감독이 협회 직원을 통해 한국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후임 감독 선임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한 상태는 아니지만, 벤투 감독이 다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하고 싶다는 의사는 확인된 셈이다.

벤투 전 감독은 2018년 9월부터 약 4년 4개월간 대표팀을 이끌며 단일 임기 기준 역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겼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1로 역전승하며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지만 대회 종료 후 재계약 없이 한국을 떠났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시사기획 창(재)	4: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 스위스·콜롬비아 7: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7:5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리 좋아좋아 스페셜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슈퍼리캡스 4(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블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미리 가본 대학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25 EBS 평생학교 16:55 수상한 방송국 17:20 강형스바대 파이아로보즈 17:50 처음 배우는 AI 19: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14 14:10 열린채널 15:10 어린이동물타비(재) 15:20 인생이 영화(재) 16:00 시사선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는 제주	12:30 육방방의 문제아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미카엔로 3(재) 16:00 TV 유지원(재)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창다! 아일랜드 2 17:15 청춘블라썸 17:30 골방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연미를 부탁해(재) 13:25 최고!다 호기심 짝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5: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켓 매직카드 13:00 보석아내 건강 수다(재) 14:00 뉴스브라썸 15:30 애-캘러리 16:30 내모세요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티마스페셜(재)	9:00 KCTV 9시 뉴스 10:00 탐-는 보이스 11:00 KCTV 11시 뉴스 11:30 리얼뉴스스토리 나는 농부다 12:30 지역이 묻고 답해가 말한다 13:40 여권 들고 등객 스매싱 15:30 소꿉친구대 16: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7:20 우리동네 히어로 시즌 1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나침반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릴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분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슈퍼리인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경제문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누난 내게 여자야 2 23:20 토요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재)	18:05 오늘N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놀러코스터 스페셜 22:3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웬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매리는 그녀들 22:50 김부장(재)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연애킴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8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과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밝은 내일을 꿈꾸자. 48년 문서 관련된 일은 손님이 예상되지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라. 60년 서두름만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72년 미혼자는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 자녀에게 신경을 것. 84년 변동보다는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추진하는게 좋다.

37년 사사로이 감정이나 오히려 언행이나 주의. 49년 진퇴를 놓고 힘들어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하라. 61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무리는 금물이고 욕심을 내지 말것. 7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85년 이성교제가 진행되나 또 다른 이성으로 고민한다.

38년 사석에서 한 말이 되돌아오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시기가지 생긴다. 62년 숨이 트이는 형국. 분주히 활동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74년 재물욕이 강해 망신수가 우려되니 정도를 지켜라. 86년 취직 또는 문서상 기분 소식이 있거나 이성교제.

39년 갈망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51년 변동이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상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63년 자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 자녀 몸에 철과 상 등이 우려. 75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7년 취직, 직장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 문제로 바쁘다.

40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툼보다는 배려할 것. 52년 일이 있으면 기쁘고, 없는 자는 돈 문제로 걱정이 생긴다. 6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진화를 할 것. 76년 아이에게 걱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신도 되는 시기이다. 88년 잘난 척하면 선풍 또는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오래도록 간다.

41년 업무에 인정받고 찾는 이가 많아진다. 53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상담이 오간다.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 65년 도난이나 손재주 조정. 외출시 문단속 철저. 7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재가 발생하니 기회 포착이 포인트. 89년 돈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성문제가 발생. 언행 주의.

42년 조금함을 갖지마라. 성급함이 후회를 낳는다. 사업관련 금전 필요. 54년 자신의 보증문제로 고민이 있고, 분주하다. 66년 이성으로 인한 망신수 또는 구설이 우려되니 성화중 조정. 78년 모임이나 친목이 길한 날. 결혼성사, 독자, 이성교제 청신호. 90년 주변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동료가 인정을 한다.

43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55년 초대를 받거나 내 역할을 때론 상대가 원한다. 67년 사소한 일에 참견이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79년 구매충동 또는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91년 약속이나 모임에 참여하니 읍주는 자중.

44년 좋은 일속에 흥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56년 내 주장은 약하게. 상대의 주장을 많이 경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68년 자존심이나 자만은 집에 두고 일터로 향하라. 80년 마음껏 활동을 하거나 이익이 필요하다. 친목모임 약속이 진행된다. 92년 이별에 상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5년 배짱과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이 좋다. 57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69년 시비거리나 구설수 등이 우려되니 사소한 일에는 유연해져라. 81년 취업, 직장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소식을 접한다. 93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란 일이 풀린다.

46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58년 투자는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변화 시 신중하라. 70년 활동량이 늘어나고 분주하며 이익은 서서히 나타난다. 82년 어떤 일을 행하기 전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뒷사람에게 공손하라. 94년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니 다시 외출하게 된다.

47년 직장에 문제 발생,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리 정돈은 기분. 59년 돈의 쓸쓸이가 커지고 허황된 재물욕에 갈등을 한다. 71년 강한 호기심으로 변화를 가져보려 하나 지금은 차분히 현실에 충실하라. 83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5년 큰소리가 오가면 불리하니 여유가 필요하다.